퍼펙트 論述

언어 논술-진리의 인식 방법

어떤 문제 출제 되었나

논술 문제에서 철학 영역, 특히 인식의 가능성 또는 인식의 방법과 관련된 영역은 논제의 보고이다. 이 영역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2007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논술 문제의 핵심 논제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느낌과 생각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였다.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논술 문제의 핵심 논제는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였다. 2004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논술의 논제도 "사실의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해석 사이의 대립에 관한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요 근래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2008학년도 모의 논술 고사의 주제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숙명여대와 성균관대학교의 2008학년도 모의 논술 고사를 들 수 있다. 숙명여대의 인문계 논술 문제 2번 문항은 "객관적 진리의 존재 유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하라"라는 논제였으며, 성균관대학교의 모의 논술 고사에서도 역사학 방법론과 관련하여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진리란 무엇인가?", "인간의 경험은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 "보편적인 것은 존재하는가?", "진리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등이다. 이 주제는 성균관대학교 2008학년도 모의 논술에서 보듯, 역사학과 관련된 영역, 더 나아가 과학 철학 영역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출제되기도 하였다.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는가" 단골 출제

객관적 진리의 존재 유무

최근 발표된 숙명여자대학교 2008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의 예를 통해 이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제시문부터 보자.

〈가〉 어떤 북방 사람이 나를 위해 걱정하여 말하기를, "강진은 탐라로 가는 나루이며 장독이 서린 고장으로서 죄인을 귀양 보내는 곳인데 그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소?"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아,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시오. 탐라의 원통함이 여기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내가 5년 동안 이곳에 살아보니 더위는 북방보다 약하고, 겨울 추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이 색다른 점이었소. 중국에서는 귤이 회수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진에서 귤과 유자가 나오는데 월출산 북쪽으로만 가면 곧 변하여 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진 땅은 중국의 회남과 위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중에 회남 땅을 일러 장독이 서린 곳이라고 하는 자를 보았습니까? 강진은 북쪽으로 한양과 8백 리 거리로서 북극과의 위차가 한양과 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겨울 해는 한양에 비해 조금 길어서 두어 자 되는 서까래에도 창문의 해는 그 중간에 있고, 여름 해는 한양에 비해 조금 짧아서 점심밥을 늦게 먹으면 저녁밥이 맛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름을 쪼개다가 겨울에 붙이고 싶어하는 것이 북방 사람들의 소망인데, 지금 강진이 이와 같으니 이 어찌 좋은 고장이 아니겠습니까? 한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아 농부는 들에서 밭을 갈고, 배추가 새파랗게 자라며 노란 병아리가 노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굳이 장독이 서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해는 짧으면서도 오히려 서늘한 기운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더운 변방'이라고 말하자 모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따라서 그렇게 말해 와서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자가 없었을 뿐입니다."

* 장독 :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

〈나〉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아나톨 프랑스는 이에 대해 "인간은 우주에 대해, 우주가 자신 안에 들어와 인간화되는 한에서만 인식한다. 인간은 사물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만을 인식한다"고 주석을 달았다. 우주에 대한 모든 판단은 그 판단의 주체에게 있어서 상대적이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똑같은 바람이 한 사람에게는 차갑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 바람을 그 자체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바람은 차가운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프로타고라스처럼 그것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차가운 것이고 차갑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갑지 않다고 해야 할까?"

똑같은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각 개인에 따라 다른 것만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도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이다. 세상은 내가 기쁠 때와 슬플 때 각각 다르게 보인다. 또 시각에 따라서도 다르다. 하나의 탑이 위에서는 둥글게 보이고 앞에서는 네모지게 보인다. 회의주의자들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란 없으며 단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주관적인 견해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 글을 읽고 난 뒤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와 〈나〉의 요지를 서로 비교"하여 300자 내외로 글을 쓰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 밝힌 해설에 따르면, 제시문 〈가〉는 새롭게 접하는 대상에 대해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기왕에 알려진 일반적인 견해가 옳지 않음을 밝힌 글이며, 〈나〉는 같은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개인도 상황에 따라 다른 상대적인 것임을 말한 글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제시문 〈나〉는 '객관적 진리란 없다'라는 입장에 서 있으며, 제시문 〈가〉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다. 즉, 편견에 기초한 사물 인식이 아니라 경험에 기초하여 사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가 설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제시문 〈나〉는 이러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즉, '객관적 진리란 없으며 단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주관적 견해들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의 관계

인식과 진리,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 보자. 우선 인식과 객관적 실재를 구분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주관과 상관없이 객관적 실재를 인간의 의식 밖에 독립해 있는 물질적 사물 현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경험론적 전통이나, 독일의 철학자 칸트, 그리고 마르크스와 같은 유물론적 입장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객관적 진리의 인식 가능성, 인식과의 상호작용 형태 등에 대해서 입장이 갈린다.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 같은 유물론자는 객관적 진리가 자연에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자연은 인간의 이성을 자극해 이를 알아가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설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법칙은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대로 돌아간다. 이런 논리를 이들은 사회까지도 확장한다. 즉 사회 안에서도 각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력 증가의 법칙이다. 인간은 그 개별 객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법과 도덕 원칙 등 상부구조도 변화를 겪는다. 이 법칙성을 찾고 탐구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에게 진리는 인식 외부에 있는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진리는 인식 내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나 아래 언급된 헤겔의 이성 철학이다. 이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성적 깨달음이 진리 탐구의 근원이며, 특히 헤겔의 경우 이런 이성적 깨달음은 더 나아가 그 자체로 축적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물이 의식을 자극해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유물론과 달리 이들은 의식의 깨달음이 현실 변화의 작동 버튼을 찾아 내 이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다소 철학적이고 고도의 지적 추상력을 요구하는 질문이지만, 학문을 했던 많은 이들이 벽에 부딪혔던 문제이고 따라서 논술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주관적 관념론이란 것이 있다. 진리의 출발점도 인식이고 그 결과도 나의 인식인 것이다. 즉 진리의 인식을 나의 주관적 범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진리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이 된다. 이 같은 인식론은 동양의 철학, 특히 도가 사상에서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지금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입니까? 바람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도 바람도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네 마음이다."

이 외에도 인간의 행동 자연의 변화 모두를 신으로 환원하는 형이상학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즉,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따라서 신이 곧 법의 원천이다.

신호승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 강사

동영상 강의
www.nonsul.1318hi.com

♠ 연습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크라테스 : 이상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서로 말하지 않을까? 즉, "우리는 우리를 곧장 이끌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 듯싶은 사상의 오솔길을 발견하였네. 즉, 우리가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 그리고 영혼이 이 좋지 못한 것과 섞여 있는 동안,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야. 무릇 육체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끝없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또 병이라도 드는 날에는 참 존재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방해하는 것일세.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정과 공포와 온갖 공상과 끝없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과 같이, 도대체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일세.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쟁투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육체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 전쟁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요, 돈이란 육신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모든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철학 하는 데 쓸 시간이 없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행한 것은, 간혹 우리에게 여가가 생겨서 사색을 하려 할 때에도 언제나 육체가 우리의 탐구에 개입하여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고, 나아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세. 그러니 무엇이든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걸세. 영혼이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일세. 이 지혜가 바로 우리의 애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터일세.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이 아니고 죽은 후의 일일 거야.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가능할 것이기에 말일세.

- 플라톤, '파이돈'

(나) 정신에 대한 철학자들의 해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신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정신을 하나의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생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그리고 지금도 발전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사건' 또는 '사상'으로 본다.

헤겔의 철학은 이런 점에서 이 책의 관점과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정신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의 전개만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 책의 논의는 정신의 '현상'이 아니라 정신의 '발생'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한다.

정신을 출현시킨 단초는 직립 보행과 그에 따른 조작자로서의 '손'의 출현에 있다. 조작 전문용으로서의 손은 인간에게 유일한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인간에게 의미하는 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또한 손을 바탕으로 한 노동이 인간에 특유한 자기 의식을 생성시켰고, 노동과 자기 의식은 다시 언어를 생성시켰다. 인간 언의의 기원은 새로운 지각 체계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며, 이 새로운 지각 체계는 도구 제작을 통해서 출현했다는 것이 분석된다.

- 조용현,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 (가)와 (나)는 인간 인식의 근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의 견해를 요약한 뒤, (가)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시오.(600자 내외, ±60자 허용)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쌍촌동 한국병원 옆)
식당, 일식, 횟집, 레스토카페, 고기전문점 적합
· 1층 50평 임대
· 1층 30평 임대
· 봉선동 한국·쌍용아파트 정문앞
화원임대 (1층 25평 봉선동 화원최적지)
· 봉선동 최고요지 (쌍용·한국아파트 정문앞)
· 최고의 주거지역
· 초·중·고 인접
학원 임대
· 봉선동 쌍용·한국아파트 입구
· 대로변 사거리코너
· 5층 103평 보1억 월185만
· 최고 인테리어 시설 비품 포함
토지매도
· 광산구 산정동 하남택지지구뒷편 - 답750평 평당75만원(자연녹지) 8m도로접 6차선계획도로접
· 수완택지지구 D블럭 근린생활지역 - 대70평 평당 650만
상가건물매매
· 봉선동 쌍용아파트 정문앞 - 대지 140평, 건평 200평, 매매가 11억5천(용지4억)신축건물
모텔매매
· 여수시 학동 비닷가앞 - 대지370평 건평 560평 객실 42 용지15억 매매가 25억 월매출 4천만 이상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북구 문흥동 주택지 나대지 외54평 평당 120만원
·남구 봉선동 주택지 나대지 외66평 당180만원
·북구 두암동 나대지 외40평 당150만원
·담양군 창평면 장동리 공장용지 외1,000평 당18만원(2차선도로접)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관리지역 폭4차선접 외8000평 평당22만원(공장용지, 식당, 가든최적지)
·북구 만월동(청옥동) 동사무소건너편 주거지역 160평/398평(전원주택, 식당용지최합)매매가 평당360만원
·담양군, 폭 8간관리 국도접 도림대학부근 424평 평당35만원
·광산구 옥동(평동소재지) 대지 180평당 190만원(상가, 식당, 쿠폰부지 최합)
고시원매매
·북구 중흥동 전대후문쪽 신축 건물고시원 대지68평 건평110평 실32개 시설완비 수익률 월800만원수입 매매가 5억8,000만원
건물매매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지 156평 건평 345평 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740만원 용지6억포함 매매가 10억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대지 외69평 건평300평 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666만원 용지4억4,000만원포함 매매가 8억
·북구 일곡동 대지114평 건평468평(지하1층 지상5층)세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620만원
·북구 중흥동 중흥점에스빌건너편 대로변 대지169평 건평370평(지하1층, 지상4층)1층 세보증금 6000만원에 월1,30만원 2,3층 복층형학실 4층 주택공실 매매가 7억2,000만원(용지6억 41,000만원 포함)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 內 대지160평 건평670평 (지하1층 지상5층)세보증금 3억1,000만원 월1800만원 매매가 23억(용지1.0억포함)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앞 대지86평 건평217평 세보증금 1억1,600만원에 월320만원 매매가5억7,000만원(용지2억 5000만원포함)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앞 대81평 건평252평 (지하1층지상6층) 세보증금2억7,000만원에 월710만 매매가 11억(용지2억3,000만 포함)
·일곡동 대지114평 건평468평 매매가 11억
주유소매매
·광산구 소촌동 중대지 면적 780평 건평484평 (주유소, 간물2동포함)세보증금 1억3,450만원 월702만원 매매가 21억
·북구 오치동 대지446평 건평210평 주유기8대 세차기 현상입증 매매가 15억
※그외 원룸, 고시원, 건물, 토지 다량보유 상담요

믿음과 정직으로 방방곡곡부동산컨설팅(주)
☎010-3002-0099
(062) 371-0001
www.방방곡곡.com
토지매도
• 광송간 대로변 운천동 코너 일반상업지역(지하철역 코너) 250평 평당 1천만(조정가)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공시지가수준(분할가능) 500평 평당750만원
• 공항 맞은편 예식장바로뒤 매립지 답901평 당45만원
※그외 250여건 매물 확보 상담환영※
상가신축건물 임대
• 상무지구내 E마트 이래4층 신건물 1층 118평, 2~4층 140평 전층일괄 임대수수료매장, 병의원, 보석, 고급여성의류
• 상무지구 SM빌딩 지하노래방 70평, 2층·3층 일반음식점, 사무실 134평
• 콜롬버스부근 노래방, 유흥시,권 저렴
• 센트럴관광호텔 부근 유흥 노래방(성업중)시,권조정가능
※상무지구내 상가 전담부서 운영※
• 용봉동 M타워 빌딩 분양임대 1층국민은행입점 1,2,3층여층
홈페이지에서 매물 등록도 하시고 검색하여 공동 중개 환영 합니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매매상담환영-사업목적부지·건물·자산투자부지 등 매입목적을 최적달성하고 적정보유기간은 예측하는 매매상담
거래전문성-최상의 경제효과와 신속성, 법률적 안전성, 사회적 비밀보호를 지키는 거래
첨단지구상업용지
평당가격:200만원~1200만원
면적:240 270 510 1100 3000 100 111 115 180 200 250 등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78평 당400만 외 다수
협의양도인택지:86평 당190만 등
생활대책용지 상업용지 등
골프연습장:15억 수익성높음
상무지구
260평 당450만 200평 당1200만
광주지역 녹지 사업부지
충전소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골프연습장부류기지 1만, 1만3천평
물류공장부지 2900 25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삼거동 2차선접 2500평
전용가능한사업부지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평당 90만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평당 65만
우량임야
25만평:광주25분 연수원복지시설골프장
50만평:광주25분 골프장최적
15만평:광주40분
영암18만평 보성9만평 화순2만6천평
물류창고부지
5000평:담양 고속도로 7분
7000평:담양 고속도로 10분
공 장
장성 3000평 하남공단 980평
모 집
실전경험 풍부한 실장님과 적극적인 남·여가족을 모십니다.
•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1-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산28번지 일대
◉분양면적 : 205평서 414평까지
◉분 양 가 : 상담 후 결정
◉본택지의 특성◉
1. 접근성이 용이함 - 동광주IC에서 30분거리
2. 정남향으로 단지를 배치하여 조망 및 일조권 확보
3. 주변의 레저 및 관광명소등이 근거리에 위치 (추월산, 담양리조트, 죽녹원, 담양호, 가마골 생태공원 등)
4. 투자가치가 높음
◀ 급히 구 합니다 ▶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함 서구 남구 경지정리된 농지(대토용)
◉광산구 우산동 농지 구함-비행장 맞은편(약2,000평)
◉관리지역 토지 구함 (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관내농지 평수에 관계 없음)
◉묘지구함 : 1,000평 이상 (함평나산 / 나주노안 봉황 금천 다도 / 장성)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원룸,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원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법원경매 전문회사
-앞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옆)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 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예상가 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모텔/원룸 상담 대표이사 011-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산정동/업무용시설/대145건493	15억600만	8억800만
호남동/주상/대323건549	46억1000만	20억2000만
쌍인동/쌍인원 오피스텔/대163건20	33억	23억1000만
나주시/진흥농원/대1285건360	4억6500만	2억8000만
장성군/삼계/대3365건1562	43억7000만	19억8000만
장성군/식당/대280건253	8억3000만	3억7000만
광산구월계동(월계원)/대78.7건154	3억1700만	2억2100만
평방동교원문원/원룸/대614건708	2억150만	1억410만
본오동/모텔/대1195건380	13억5000만	9억7000만
용봉동/원룸/대45건76	2억2500만	1억5700만
중흥동/원룸/대43건70	2억1000만	1억410만
학동/원룸/대95.9건262	5억400만	4억900만
장성군/모텔/대478건482	10억8700만	3억8900만
화순읍/원룸/대116/건197	5억5500만	3억1600만

▶상가주택/주택

소재지/물건개요/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수완동/대1.09/건48	2억2300만	1억250만
북구중흥동/일반상업지역/대822	32억7300	11억7300만
북구신안동/일반상업지역/대89	4억6100만	2억4700만
장성군동화면/대899건245	4억8100만	1억2200만
나주시동창면/대4054/건1281	15억9000만	7억2500만
담양군금성면/대2192건442	5억6000만	3억5400만
남평읍우산리/대1601건516	11억1000만	4억1600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소촌동/대1.09/건48	2억2300만	1억250만
북구중흥동/일반상업지역/대822	32억7300	11억7300만
북구신안동/일반상업지역/대89	4억6100만	2억4700만
장성군동화면/대899건245	4억8100만	1억2200만
나주시동창면/대4054/건1281	15억9000만	7억2500만
담양군금성면/대2192건442	5억6000만	3억5400만
남평읍우산리/대1601건516	11억1000만	4억1600만

▶임야/농지

소재지/물건개요/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화순군동면/개발도로개설/51087	1억8000만	1억600만
나주시남평읍/임야/2000평	5298만	3703만
나주읍산동/밭/대수림/353평	5492만	3845만
담양군금성면/오창도로접/2480평	1억6200	1억2962만
광산구도산동/일동주차장/대1265평	4억8300만	3억3800만
나주시왕곡면/답/884평	3500만	2455만
광산구양동/답/754평	7700만	5400만
나주시나시면/답/4422평	5381만	3091만
나주시다도면/답/767.7평	3045만	2132만
나주시왕산동/과수원/1602평	2억4045만	1억3832만

▶아파트

소재지/물건개요/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화순군/금호타운/27평	8500만	5950만
전일동/현대/32평	9000만	6300만
동림동/우미/25평	5100만	3570만
지평동/라인동산/25평	9500만	6650만
풍암동/대주/59평	2억3500만	1억8450만
봉선동/모아/27평	5600만	3920만
양산동/금광/32평	8300만	5810만
봉선동/금호/31평	1억3000만	9100만
봉선동/삼익2차/32평	1억500만	7350만
문흥동/삼룡/24평	7000만	5600만